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⑩

규 원 사 화

▣ 一沙 權 正 孝 옮김

(지난호에 이어)

그리하여 모든 고을의 지세(地勢)를 살피고는 태백산 서남쪽 우수하(牛首河)의 벌판에 도읍을 세워 '임금성(壬儉城)'이라 하니, 지금의 만주 길림 땅에 소밀성(蘇密城)이 있어 속말강(涑沫江)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땅이다. 속말강은 또한 소밀하(蘇密河)라고도 일컬어지며 곧 옛날의 속말수(粟末水)이다. 신라 때에 속말말갈(粟末靺鞨)이 있어서 속수(粟水)의 땅을 점거하고 있다가 대조영이 흥기하자 그 선봉이 되었다. 대저 말갈은 옛 숙신(肅愼)의 후예로서 이 또한 단군의 자손인데, 뒤에 점차 쇠퇴해져 선조의 옛 강역을 모조리 다른 사람의 손에 던져 주고는 구구하게 말갈의 일족이 되어서 여전히 고향 땅에 깃들어 살았었다.

대씨(大氏)가 한 차례 호령하니 그 그림자를 좇는 자가 수십만이 되었으며, 천문령(天門嶺)에서 크게 이기고는 나라의 기초를 이로서 바로잡게 되었으니, 무릇 어찌 우연이라고만 하겠는가. 대개 소밀(蘇密)·속말(涑沫)·속말(粟末) 등은 모두 '우수(牛首)'의 의미와 서로 가까운데, (그 말은) 대대로 그릇되게 전해졌지만 오히려 그 뜻을 잃지 않았으니, 이는 성인이 자리잡은 곳에 신의 조화가 두루 미쳐 만세가 지나도록 그 운치가 끊어지지 않았음이 어찌 아니겠는가.

지금의 춘천 청평산 남쪽 십여 리에 소양(昭陽)과 신연(新淵)의 두 강이 합쳐지는 어귀에 우두대촌(牛頭大村)이 있으니, 산 속에 드넓게 펼쳐져 있으면서 강의 흐름을 안고 도는 이곳이 바로 맥국(貊國)의 옛 도읍지이다. 맥국 역시 단군 때에 나왔기에 도읍을 세우며 그 이름을 그대로 따른 것이니, 반드시 그러한 이치가 있었을 것이다.

청평이 말하기를 [속말수(粟末水)의 북쪽에 발해 중경(中京) 현덕부(顯德府)의 땅이 있으니, 이곳이 바로 단군이 처음으로 도읍을 정한 임금성으로 곧 평양이다. 북으로 상경(上京) 홀한성(忽汗城)과는 육백여 리 떨어 졌으며…]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고왕(高王)의 꿈 속에 신인이 나타나 금부(金符)를 주며 말하기를 {천명이 네게 있으니 우리의 진역(震域)을 통치하라}고 하기에 나라의 이름을 '진(震)'이라 하고 '천통(天統)'이라 건원하며 항상 하늘을 공경하여 제사를 지냈는데, 자손에 이르러 교만하고 안락함에 빠져 점차 이를 폐지하고 또한 유학과 불교를 아울러 섬기니 마침내 쇠퇴하여…]라고 하였다.

지금 나라 안팎의 서적에는 모두 이 말이 없다. 아마도 홀한의 패배 때 요나라 오랑캐의 흉악한 잔당들이 궁실이며 창고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거의 모두 불살라 버렸으니, 다시 어찌 서적 가운데 남아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발해왕자 대광현(大光顯) 이하 고려에 투항해 온 자가 매우 많았는데, 그 중에는 공경대부나 제후와 재상 및 비분강개하는 의기로운 선비도 많았으니, 청평이 기록한 것은 아마도 발해인들이 비밀리에 소장한 것에 근거한 바가 있었을 것이다.

괴이하게도 김부식이 인종(仁宗)을 위하여 《삼국사기》를 편수하며 2천년 동안의 옛 성인이 남긴 공덕을 빠트리고 기술하지 않고서, 단지 [해동 삼국의 역년이 장구하나 옛 기록은 문자가 거칠고 졸렬하며 일의 자취는 이지러져 없어지고 앞선 말들이나 지나간 일들은 가뭇가뭇 어둡기만 하니…]라고 하며 이와 같은 말로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그러다 동천왕이 천도한 해에 이르러서야 겨우 [평양은 본래 신인왕검이 자리잡은 곳이다] 혹은 [왕이 왕검에 도읍을 하였다] 등의 글귀가 있을 뿐이다.

(다음호에 계속)

우강 권이혁 전 장관 에세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철학이야기가 나오면 우선 그리스 철학을 먼저 꼽을 수밖에 없다. 철학의 효시가 그리스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이다. 철학이그리스어의 'philosophY'라는 사실은 주지되어 있는데 'philos'는'사랑한다', 'sophy'는 '지혜' 라는 뜻이다. 즉 philosop는 '지혜를 사랑한다' 는 뜻이다. 그리하여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은 누구나'철학을 하는 사람' 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는 문제가 나온다. '지혜를 사랑한다' 는 것은 한 마디로 사색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의 진실을 아는 것, 이것이 곧 '철학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기서 사색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머릿속에서 무엇을연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의 참된 모습을 찾기 위한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들 수 있다.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사색인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선현(先賢)들의 사색 경위를 공부해야 한다. 선현들의 사색은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의 사색의 안내자요, 등불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자신의 사색을 깊이 있게 하고 앞으로 나갈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철학하는 것"' 이라고 해석된다.

그렇다고 선현들의 사색을 암기하거나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기 자신이 관찰하고 성찰해서 자기 자신의 사색을 만들어야한다. 자신이 도출한 사색과 가치관은 언제나 연결될 필요가 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동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천이 없는경우에는 자칫하면 공허한 생각으로 끝나기 쉽다.

자신이 좋아하는 선현을 선택하여 그분의 책을 읽고. 말에 접하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알게 되고 가치관을 깊이 있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생존 의의, 자신의 인생관, 자신의 가치관을 정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누구나가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그래서 선현들의 철학은 절대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여기에는 자신의 관찰과 체험이 꼭 수반해야 하는 까닭이다.

그리스 철학의 흐름을 보면 탈레스(Thales, BC 6세기)·피타고라스(Pythagoras, BC 570?-500?)·데모크리토스(Democntus, BC460?-370?)등 자연철학을 시작으로,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BC485-410), 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 등으로 이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 후에는 에피쿠로스(Epicurus, BC 341-270), 제논(Zenon,BC 495-430경) 등이 유명하지만 워니뭐니 해도 그리스 철학의 중심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사람이 중심이다.

1. 소크라레스의 희망

소크라테스(Socrates, BC 470-BC 399)는 아무런 저작물도 남기지 않았지만 크세노폰(Xenophon, BC 430-355?)과 플라톤(Plato, BC 427-347)이 그의 언동과 업적을 기리는 작품을 남겼다. 크세노폰의 『소크라데스의 추억』과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유명하다.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철학의 제1인자라는 것은 주지되어 있는 사실이다. 그는 아테네(당시는 '아데나이'라고 불렀다.)에서 병사로 활약한 후 변른가가 되었다. 그는 젊은이들로부터 사례를 받고궤변을 농하는 소위 소피스트(sophisit, 궤변가)들과 논쟁해서 이겼다. 그는 무료로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정당한 길을 가르쳤다(우강 에세이 Ⅳ집 어르신네들이며, 꿈을 가집시다. 신광출판사, P. 587참조).

소크라테스는 "청년을 부패시키고. 국가가 신봉하는 신(神)을 믿지 않고 다른 신령(神靈)을 믿었다는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당시 아테네(아데나이)는 민주국가임을 자랑했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스파르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스파르타 관할 하에 있었다. 패전 후 전제 자들에 의한 공포정치에서 겨우 벗어나 민주정치를되찾으려고 할 무렵에 소크라테스에 대한 재판이 열린 것이다.

이때 20세의 플라톤(Plato, BC 427-347)이 이 재판광경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소크라데스는 62세였는데 그는 국가·죽음·정의에 관하여 당당한 신념을 밝혔다. 그의 논리는 입으로만 하는변론술과는 달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상의 국가론 ·정의론이 중심이었다. 젊은 플라톤은 소크라레스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소크라데스의 변명』을 썼다.

당시의 재판은 시민들이 추천한 500명의 재판관과 고소를 제기한3명이었는데 소크라테스는 혼자서 이들에게 변명을 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다이모니언'이라는 정령(精靈)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소크라테스는 고발자 3인보다 자신이 현인(賢人)라고 했다. 고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알고 있는 것같이 행세하지만 자신은 선(善)과 미(美)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알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보다 지혜가 많다고 하였다. 이것이 유명한소크라테스의 '무지(無知)의 지(知)'이다.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것이 소크라테스 사상의 기점이 되는 것이다. 법정에서 소크라테스는 신(神)에 관해서 많은 논쟁을 했다. 그는문답법(問答法)에 따라 정연한 이론으로 논박하였지만 끝내 유죄판결이 났다.

문답법은 소크라테스의 진린탐구의 방법이다. 대화법이라고도 한다. 다른 사람과 문답하는 중에 상대의 무지를 자각시켜,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참다운 지'에 이르는 방법을 말하며 후에 변증법(辨證法)의 어원이 된다.

한편, 지(知)를 사랑하는 사람을 애지자(愛知者)라고 하는데, 이는 철학자를 말한다. 자신을 '지자(知者)'라고 지칭하는 '소피스트'를 비판하는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무지를 자각하고 있는 까닭에 애지자라고 자칭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 총재단회비

△권영상(부총재)	100만원
△권순택(부총재)	20만원
△권규화(부총재)	20만원
△권오영(부총재)	20만원
△권정달(총 재)	10만원
소 계	170만원

▣ 종무위원회비

△권기범(대구)	20만원
△권영갑(수원)	20만원
소계	40만원

▣ 대의원회비

△권영복(서울)	10만원
△권태복(금천)	10만원
소 계	20만원
합 계	230만원

성공한 탁발규의 사과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전진(前秦)의 부견이 동진을 공격하다가 실패한 후에 북조에서 새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북위의 탁발규(拓跋珪)다. 그는 힘을 길러 북위와 후연 사이에 있는 중산(中山)을 공격하여 자기의 영역으로 넓히고 북위의 본거지로 돌아갔다.

이보다 앞서서 탁발규가 중산(中山, 하북성 정주시)에서부터 남쪽으로 순행하여 고읍(高邑, 하북성 백향현 북쪽)에 이르러 전에 북조를 통일하였던 전진의 좌승상이었던 왕영(王永)의 아들 왕헌(王憲)을 만나서 기뻐하였다. 청주의 중정(中正)으로 삼고 아울러 조정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 그에게 인재를 뽑는 일을 맡긴 것이다.

또 북조를 통일하는데 아주 중요한 중원의 중앙지점인 업(鄴, 하북성 임장현 서남 업진)에 이르러 원정과 토벌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중앙관청의 지방출장소인 행대(行臺)를 설치하고, 용양장군 화발(和跋)을 상서로 삼아 좌승 가이(賈彝)와 더불어 관리와 병사 5천 명을 거느리고 업성을 지키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었다. 그는 업성(鄴城, 하북성 임장현 서남 업진)에서부터 중산을 돌아서 북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병졸 1만 명을 징발하여 곧 직도(直道)를 닦았는데, 망도(望都, 하북성 망도현 서북쪽)에서부터 항령(恒嶺, 하북성 곡양현 북쪽 항산)을 뚫어 대군(代郡, 하북성 위현)까지 이르는 500여 리였다. 북조를 통일하기 위한 고속도로까지 닦았다.

다시 산동(山東, 태행산 동쪽)에서 변란이 있을 것을 걱정하여 다시 정복한 중산에 행대를 설치하고 탁발의(拓跋儀)에게 명령하여 이곳을 진수하도록 하고, 무군(撫軍)대장군 탁발준(拓跋遵)을 상서좌복야로 삼아 발해(勃海, 하북성 중피현)의 합구(合口, 하북성 창주시 서쪽)에서 진수하도록 하였다. 자기가 정벌한 땅의 안정적 지배를 위한 조치였다.

또 그는 중산을 출발하며, 산동(山東) 지역에 있는 6주(州)의 관리와 백성 그리고 여러 이족(夷族)들 10여만 명을 옮겨서 대군(代郡, 하북성 위현)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이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농사짓는데 필요한 소와 전토를 나누어 주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이들을 편안히 정착하게 하여 안정시키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노동력에 의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탁발규의 이러한 조치는 대단한 것이다. 인재 뽑는 일, 영토를 지키는 일, 행정조치를 하는 일, 경제적 조치와 안정화 정책에서 그의 조치는 조그만 빈틈도 없었다. 이러한 그의 정치력과 안목이 앞으로 갈가리 흩어진 북조를 통일하는 기초를 닦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그의 업적은 북위의 입장에서 보면 영원히 기억될 기초를 닦은 것이다.

이런 다음에 기분이 좋아서 여러 사람과 같이 사냥하다가 곰이 여러 마리의 새끼를 거느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모습을 본 탁발규는 관군장군 우율제(于栗磾)에게 말하였다. "경은 용감하고 굳세기로 이름이 났는데 이들을 때려잡을 수 있겠소?"우율제는 용감하니까 곰을 맨 손으로 때려잡아 보라는 것이었다. 그에게 장난기가 발동한 것이다.

그러나 우율제는 대답하였다. "짐승은 천하고 사람은 귀한데 만약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어찌 한 장사를 헛되이 죽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귀하게 써야 될 사람을 하찮은 짐승 때려잡는 일에 몰아넣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었다. 결국 그 곰을 몰아서 모두 활로 쏘아잡게 하였다. 탁발규는 이내 자기의 잘못을 알아채고 곧바로 우율제에게 사과하였다.

잘 못한 것을 알아도 부하에게 사과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보통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성공한 황제가 농담처럼 한 이야기에 정색을 하고 반박한 우율제에게 서운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지만 자기가 잘못한 이상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통사람도 그러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황제가 사과를 한 것이다. 역시 대성할 인물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호에 계속)

수필

모산골 마을

權 五 福
(본원 편집위원)

모산글(나곽산)마을은 동서남북 다 돌아보아도 산천초목이 아름답다. 태양이눈부시게 솟아오르면 방실방실 미소 짓는 온갖 봄꽃이 향연을 펼친다.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며 시골의 생명력이 사방팔방에서 새롭게 솟아오르니 모산골 마을이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내가 태어난 모산골 마을은 어느누구라도 자유로이 마실 수 있는 공기와 냇물이 맑아 정말 행복한 곳이다.

근대화로 낡은 초가지붕과 흙 담장 울타리도 개량하였으며 구석구석 좁은마을 길도 넓히고 농로 역시 전천후로 꾸불꾸불한 길 바로 잡아서 자동차로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도시화 농촌이다.

또한 과학적 영농기술은 특수작물을 사계절 연중 특성화 사업으로 재배하게 했다. 이제 농촌이 특수작물재배 등 유통산업 마케팅 서비스가 온라인 시스템화 되어 농촌의 사업소득이 도시의 일용근로자보다 좋게 되었다. 그래서 노후대책 일환으로 도회인들조차 귀농 귀촌하는 현상도 해마다 두드러지는 추세다.

모산골 마을은 1,300km 낙동강물이 나곽산 뒤로 흘러 푸른 명경지수처럼우리 몸의 대동맥에 견줄만 하다. 이에 마을 앞에 우뚝 선 「나곽산」은 소라형의 부(富)를 상징하는 산으로써 백두산에서 뻗어 내린 백두대간이다.

그리고 구잠리(九潛里) 모산리(毛山里)는 마을 앞에 큰 연못이 있는데 옛날에아홉 마리 용(龍)이 잠겨 있다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설'이 있는 명당 마을이기도 하다.

이제 지방의 사회 산업도 발전하여 농촌도 첨단과학으로 미래성장 동력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곧 농촌도 세계화에 앞장서는 새로운 이미지가 구체화되어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브랜드가 창출될 것이다.

마침내 정부가 농촌연구소를 확대하고 도시인의 귀농정착에 특별지원과 영농기술교육을 지도함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며 농촌이 잘 살아야 온 국민이 행복해 질 것이다.

나무는 人間을 지키는 현자이다

▣ 權 寧 翼 (본원부총재)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오랜 수명을 가진 생명체이다. 그들은 한 곳에 뿌리박고, 침묵마저 지켜야 하는 희생을 치르고 있다.

인간은 그들의 속살과 껍질과 열매와 뿌리까지 탐하면서도, 나무의 소리없는 외침을 듣지 못한다.

나무는 인간에 앞서 이 세상에 있었다. 인간이 쏟아지는 비 한방울에도 겁을 먹는 보잘 것 없는 존재였을 때, 나무는 그 당당한 체격과 풍모로 모든 자연물을 압도하는 존재였다. 그는 자연을 정복하기는 커녕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자식인 열매를 내주었고 은신처를 제공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나무를 하늘의 신을 대리하는 존재로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무의 뿌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지하의 심연을 꿰뚫었고, 줄기는 천상에 맞닿았다.

하늘과 지하를 아우르는 나무, 그들 사람들이 신의 말을 전하는 메신저로 여긴 것은 당연했다. 하늘 신이 하늘과 땅을 오가는 통로로 여겨졌던 나무는 곧 그 자신이 신이 깃들어 있는 존재로 격상되었다.

사람들은 나무에게 소원을 빌며 그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우리네 옛 마을에는 으레 '당산나무'라 불리는 큰 나무가 있었다. 암수로 쌍을 이루는 당산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으로서주민들의 우러름을 받았다. 마을 어귀에 세워놓은 솟대나, 남녀 한 쌍으로 세운 장승도, 나무가 병마와 재앙을 물리치는 주력이 있다고 믿는 데서 유래된 전통이었다.

그러나, 지혜가 늘어가기 시작한 인간들은 언제까지나나무를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열매를 따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말없는 절대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방법을 찾았다.

어느 천둥번개가 치던 밤, 사람들은 우러러 모시던 거목이 불에 타는 것을 보았다. 날이 밝아, 모든 것이 황폐해진 현장을 보며, 인간들은나무가 자신처럼 약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품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나무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문명'이라 불리는 인간들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은 나무를 가지고 그들의 거처를 지었으며, 장작과 숯으로 몸을 따뜻하게 했다. 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횃불을 밝혔고, 송진과 타르부터 시작해서 향료, 유황, 끝내는 나무의 투명한 혈액인 수액까지, 그의 모든 생성물을 가져갔다.

한때는, 혹여 노여움을 살까 접근하지도 않았던 나무였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영혼이 있다고, 아니손톱 만큼의 감정도 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최소한의 생존이 아니라 일상의 안락과 미적 감각의 만족을 위해 나무를 희생시키고 있다. 호두나무는 책꽂이가 되고, 물푸레나무는 장식장이 되었다. 고로쇠 나무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수액을 도둑 맞으며 매일 거대한 숲 하나가 젓가락을 만들기 위해 없어진다.

물론, 사람들은 나무를 소중히 다루고 있다고 항변한다. 식목일을 정해 나무를 심고, 희귀한 나무들은 안락한 식물원을 만들어 보호하며, 열대림을 살리자는 운동도 벌이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나,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 점점 더 젊은 나무들이 희생당한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웬만한 나라 면적의 삼림에 자취를 감추고 야산이 깎여나간다.

(다음호에 계속)